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9 in D major
작곡가: Gustav Mahler (1860–1911)
작곡 시기: 1909–1910년
초연: 1912년 6월 26일, Wien Musikverein Großer Saal; Wiener Philharmoniker, Bruno Walter 지휘 장르: 네 악장 관현악 교향곡

IMSLP: Symphony No.9, GMW 50 (Mahler, Gustav)

Wikipedia: Symphony No. 9 (Mahler)

Mahler의 Symphony No. 9 in D major는 성악 없이 관현악만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이며 , 이 글은 전곡을 다룬다. 악장은 Andante comodo,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의 순서다.

Symphony No. 9은 Mahler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이다 . 그는 1910년 Symphony No. 10을 시작해
다섯 악장의 전체 구상을 남겼지만 정서와 관현악화를 마치지 못했다. 바로 앞의 Das Lied von der Erde는 성악이 포함된 여섯 악장의 교향적 작품이며 번호가 붙지 않았다.

자료로 확인되는 9번의 작업은 1909년 여름 Toblach에서 시작한다. Mahler는 9월 초 관현악 초고를 마쳤고 1909–1910년 New York 시즌에 자필 정서본을 만들었다. 두 필사자가 마련한 판각용 사본에도 직접 수정과 추가를 남겼다. 그는 1911년 사망하기 전에 이 곡을 듣거나 리허설하지 못했으므로 생전 공연을 거친 다른 교향곡처럼 실제 음향을 확인한 뒤 다시 고치는 과정은 없었다.

소요 시간

Universal Edition은 약 75분, Berliner Philharmoniker는 약 83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90 분을 제시한다. 1912년 초연은 실제 연주 시간이 약 73분으로 전하며, Bruno Walter와 Wiener Philharmoniker의 1938년 최초 녹음은 약 70분이다. 두 느린 외악장의 속도와 구간별 완급이 달라지면서 전곡은 대체로 75–90분에 놓이지만 초기 전승에는 이보다 빠른 비례도 있다.

I. Andante comodo: 약 25–31분
II.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약
14–17분
III.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약 12–14분
IV.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약 23–28분

편성

Woodwinds: 1 Piccolo, 4 Flutes; 4 Oboes (Oboe 4 also Cor anglais); 1 Clarinet in E♭; 3 Clarinets in A (also in B♭); 1 Bass Clarinet in B♭; 4 Bassoons (Bassoon 4 also Contrabassoon).
Brass: 4 Horns in F; 3 Trumpets in F (Trumpets 1–2 also in B♭); 3 Trombones; Bass Tuba. Percussion: 2 Timpani players; 4 players for Bass Drum, Cymbals, Tam-tam, 3 Low Bells, Glockenspiel, Snare Drum, Triangle.
Harp: 2 Harps (Harp 2 ad libitum).
Strings: Violins I, Violins II, Violas, Violoncellos, Double Basses.

목관악기는 피콜로를 포함해 5ㆍ 4ㆍ 5ㆍ 4로 배열된다. 금관에는 호른 네 대와 트럼펫과 트롬본 각 세 대, 베이스 튜바가 들어간다. 여러 타악기는 악장과 대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인다. 2악장 끝에서는 피콜로와 콘트라바순 , 뜯는 현악기가 가느다란 음향을 만들고 4악장 마지막에는 현악기만 남는다.

제 2하프는 현행 Universal Edition 편성에서 ad libitum 으로 표시된다. Erwin Ratz가 남긴 편집 메모는 자필 총보와 파트에서 제 2하프 표기가 3악장 특정 대목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Christian Rudolf Riedel의 Breitkopf 본문비평판도 하프 대수와 현악기 활 표시처럼 자료가 한 가지 답으로 닫히지 않는 항목을 따로 드러낸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자필 자료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다. 1910년에 완성한 정서 총보는 New York의 Morgan Library에 있고, 1–3 악장 관현악 초고와 스케치북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보존돼 있다. 3악장 Rondo-Burleske 의 별도
스케치도 Morgan Library에 남아 있다. Mahler 사후 일부 스케치가 잘려 따로 팔렸기 때문에 남은
자료만으로 모든 수정 단계를 빈틈없이 이을 수는 없다.

판각용 사본의 필사자도 악장마다 달랐다. 1악장은 New York Philharmonic의 제 2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사서였던 Henry G. Boewig가, 2–4악장은 Wien의 Johann Forstik가 옮겨 썼다. Mahler는 이 필사본에 다시 손을 댔다. 특히 1악장은 관현악 초고에서 최종본으로 가는 동안 네 악장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졌다. 2악장 초고에는 최종본에 없는 Menuetto infinito 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Mahler는 1910년 5월 21일 Universal Edition과 출판 계약을 맺었지만 판각은 그의 사후인 1911년 7월에 시작됐다. 1912년 6월 초연은 인쇄 총보가 아니라 필사 자료를 사용했다. 인쇄 총보는 12월 10일 처음 납품돼 같은 해 Wien의 Universal Edition에서 출판됐다.

이 글의 기준판은 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의 기존 비평전집에서 Erwin Ratz가 편집한
제 10권이다. Universal Edition UE 13825로 1969년에 나왔고 1998년과 2004년에 교정 인쇄됐다. IGMG 공식 목록에서 9번은 아직 신비평전집판으로 교체되지 않았다. 별도로 Riedel이 편집한 Breitkopf PB 5639는 Ratz판의 자료 평가를 바탕에 두면서 남은 오류와 열린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

작곡 연표와 ‘고별 ’ 수용

Alma Mahler는 남편이 1908년 여름부터 9번을 스케치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Eulenburg 학술 서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동시대 자료가 없고 1909년 6월의 Mahler 편지에도 새 교향곡 작업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자료로 확실히 좇을 수 있는 시기는 1909년 여름의 관현악 초고부터 1910년 4월 1일 New York의 정서본 완성까지다 .

고별 어휘는 자필 자료에 직접 남아 있다. 1악장 초고에는 사라진 젊음과 사랑을 부르는 문구, Leb’ wohl! 과 Welt! Lebe wohl 이 적혀 있다. 하강 2도 음형 옆의 이 말들은 고별 수용에 직접 근거를 준다. 다만 Mahler는 당시 New York에서 지휘 활동과 다음 시즌 계획을 이어 갔고 곧 10번을 쓰기 시작했다. 자필의 고별 문구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한 유언이라는 주장은 증거의 범위가 다르다.

첫머리의 불규칙한 첼로 리듬을 Mahler의 부정맥 심장박동에 빗대는 해석도 널리 알려졌다. 이 비유는 Leonard Bernstein 이후 퍼졌으며 Mahler가 붙인 표제는 아니다. 초연 뒤 Alban Berg가 1912년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1악장을 삶에 대한 강한 사랑과 다가오는 죽음의 예감으로 읽었다. 이것은 작품을 처음 받아들인 한 작곡가의 직접 반응이지, Mahler가 밝힌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후 초연과 초기 전승

Bruno Walter는 1912년 6월 26일 Wiener Philharmoniker를 지휘해 Wien Musikverein 대홀에서
초연했다. Walter는 Mahler 생전에는 9번 악보를 보지 못했고, Alma Mahler에게 초연을 제안받은 뒤 작품을 받았다. 그의 초연은 남은 필사 자료를 처음 무대에 옮긴 기록이며 Mahler에게 직접 승인받은 연주 해석은 아니다.

초연 평은 엇갈렸고 작품의 재공연도 오랫동안 드물었다. Walter가 같은 악단, 같은 장소에서 남긴 1938년 1 월 16일 실황은 첫 전곡 녹음이 됐다. HMV의 Fred Gaisberg는 다섯 차례 리허설을 마련하고, 78회전 원반의 짧은 면을 이어 붙이기 위해 두 대의 절삭기를 교대로 운용했다. 이 음원은 2015년 미국 National Recording Registry에 등재됐다.

Walter는 1936년 저서에서 2악장을 비극적 저음이 깔린 춤, 3악장을 대위법적 숙련의 표본, 4악장을
세상과의 평화로운 작별로 설명했다. 실제 녹음의 마지막 악장은 후대 연주보다 훨씬 빠르다. 그는 1954년 RCA가 동의 없이 재발매했을 때 음악적ㆍ기술적 결함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1938년 실황은 작곡가의 최종 해석이 아니라 초연 지휘자와 악단, 전전 Wien의 포르타멘토와 빠른 비례, 당시 녹음 기술의 제약이 함께 남은 사료다.

I. Andante comodo

1악장은 D장조를 중심으로 약 30분에 걸쳐 펼쳐진다. 첼로의 고르지 않은 리듬, 호른의 짧은 신호, 하프의
음형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뒤 현악기의 긴 선율이 이어진다. Berliner Philharmoniker의 Malte Krasting은 세 주제군을 다루는 느슨한 소나타 형식으로, Los Angeles Philharmonic의 John Mangum은 소나타 원리에
첫 주제의 반복 귀환이 겹친 구조로 설명한다. 두 설명은 주제가 되돌아올 때마다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전개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만난다.

하강 2도 음형과 Leb’ wohl! 문구는 이 악장에 있다. 조용한 재시작과 큰 고조가 여러 차례 교대하다가
금관과 큰북, 탐탐이 합쳐지는 대목에서 악보의 mit höchster Gewalt 지시에 이른다. 뒤이어 장송 행렬을
가리키는 표기와 멀리서 응답하는 트럼펫이 나타나며, 끝에서는 플루트의 새소리와 독주 악기들이 얇은

음향을 남긴다 .

지휘자들은 첫 고조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 둘지를 다르게 판단했다 . Bernstein은 1971년 Wiener Philharmoniker 리허설에서 39마디부터 이미 모든 힘을 쏟고 곧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Simon Rattle과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2018년 공연을 평한 Alex Ross는 큰 템포 변화를 자제하면서 하프 , 낮은 관악기 , 호른 신호를 분리해 들리게 한 점을 짚었다 . 두 사례는 같은 긴 악장을 절정의 연속으로 만들지 , 일정한 흐름 안에서 세부를 드러낼지 갈리는 선택을 보여 준다 .

II.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2악장은 C장조의 느긋한 Ländler로 시작한다 . 제목의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는 다소 서툴고 매우 거칠게 연주하라는 뜻이다 . 무게가 첫 박에 실리는 Ländler와 더 빠른 왈츠 계열 구간이 교대하고 , 세 춤 템포는 돌아올 때마다 악센트와 악기 조합을 바꾼다 .

마지막 Ländler에서는 음향이 급격히 얇아진다 . 호른 , 여러 목관악기 , 비올라가 독주처럼 갈라지고 피콜로의 짧은 동기가 콘트라바순과 뜯는 현악기 위에 남는다 . 대규모 편성과 실제 끝부분의 가벼운 배치가 뚜렷이 대비되는 악장이다 . Walter가 이 춤에 비극적 저음이 깔린다고 설명한 반면 시대악기 프로젝트를 이끈 Philipp von Steinaecker는 거트현의 포르타멘토와 선택적인 비브라토로 오래된 춤의 마찰을 되살리려 했다 . 1938년 Walter 음원에도 지속적인 비브라토가 들리므로 무비브라토를 Mahler 시대의 단일 관행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

III.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3악장은 A단조의 빠른 론도다 . 트럼펫의 짧은 주제에서 출발해 여러 성부가 푸가토로 들어오고 , 되풀이되는 론도와 촘촘한 대위법이 겹친다 . `Sehr trotzig`는 매우 반항적으로 연주하라는 지시다 . 목관과 금관 , 현악기의 짧은 음형이 맞물리며 앞 악장의 춤보다 더 단단한 박동을 만든다 .

심벌즈가 울린 뒤 금관 코랄과 트럼펫 독주가 여는 느린 중간부는 4악장의 음향을 앞서 보여 준다 . 이 대목을 얼마나 늦추는지도 연주마다 다르다 . Ross는 Rattle이 2018년 공연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지나가 주부가 돌아올 때의 충격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 이후 푸가토가 돌아오고 속도가 차츰 붙으면서 전 악단의 짧고 강한 종결에 도달한다 .

IV.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4악장은 D♭장조의 느린 악장이다. 현악기만으로 시작한 넓은 선율에 호른과 목관악기가 합류하고, 강한
고조와 가늘어진 재시작이 반복된다. 3악장 중간부의 선율이 느린 맥락에서 다시 나타나 두 악장을 연결한다. 제 1바이올린에는 Kindertotenlieder 제 4곡 끝의 선율과 관련된 인용도 들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관악기와 타악기는 사라지고 현악기만 남는다. 선율 조각 사이의 쉼이 길어지며 마지막에는 ersterbend, 곧 죽어 가듯 사라지라는 지시에 이른다. Walter는 이를 푸른 하늘 속으로 구름이 녹는 평화로운 작별로 설명했다. Karajan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일이 지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고, Berliner Philharmoniker와 약 70시간을 준비한 뒤 자신이 원한 ‘가려진 음향 ’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고에서 중요한 것은 느린 속도만이 아니다. 현악기군의 혼합 음색을 오랫동안 다듬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난다.

악보 지시와 서로 다른 연주 전통

Mahler는 현악기 활 방향, 포르타멘토 , 셈여림, 구간별 속도를 빽빽하게 적었지만 작품을 직접 리허설하지 못했다. Ratz판과 Riedel판이 활 표시와 하프 대수를 다시 검토하는 까닭도 남은 자료 안에 중복과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초연자 전승, 자필 정서본, 판각용 사본, 1912년 초판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실연 선택을 확정할 수 없다.

역사 녹음의 사용법도 달라졌다. Kirill Petrenko는 2024년 인터뷰에서 9번을 준비할 때 Walter의 연주를 듣는다고 밝히면서, 잃어버린 전통의 근원에 조금 다가갈 뿐 오늘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alter의 빠른 비례와 포르타멘토 , Karajan의 오랜 음색 준비, Steinaecker의 거트현 실험은 서로 다른 자료와 목표에서 나온 선택이다.

녹음으로 비교하는 속도와 음색

Bruno Walter / Wiener Philharmoniker (HMV, 1938): 초연 지휘자와 악단, 장소가 다시
만난 최초 전곡 녹음이며 전곡이 약 70분이다. Ländler의 거친 박동과 현악 포르타멘토가 남아
있지만 3악장의 피로와 부정확성, 빠르게 지나가는 마지막 악장도 들린다는 비평이 있다. Walter
자신도 결함을 인정했으므로 권위 있는 정답보다 초기 전승의 복합적인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Herbert von Karajan / Berliner Philharmoniker (Deutsche Grammophon, 1982 실황): 1979–1980년 스튜디오 녹음 뒤 다시 공연한 판이다. Karajan은 네 차례 초견 리허설, 긴 숙성 기간, 약 70시간의 연습으로 ‘가려진 음향 ’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he Guardian의 Andrew Clements는 두 Karajan 녹음이 정제된 음향, 날카로운 진행과 깊은 감정을 함께 지닌다고 평가했다

.

David Zinman / Tonhalle-Orchester Zürich (RCA Red Seal, 2009 녹음ㆍ 2010 발매): Zinman은 죽음의 심리극을 앞세우기보다 통제된 속도와 분명한 아티큘레이션으로 고전 교향곡과
20세기 음악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The Guardian의 Tim Ashley는 이 절제가 감정을 약화하지
않으며,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강한 집중을 만든다고 평했다.

같은 악보라도 Walter의 빠른 초기 전승에서는 약 70분, Karajan과 Zinman을 비롯한 후대 해석에서는 80 분대까지 늘어난다. 차이는 마지막 악장의 속도와 함께 1악장 절정의 배치, 춤의 박자감, 3악장 대위법의 선명도에서 드러난다.

주요 자료

Eulenburg, Symphony No. 9 학술 서문: 1909–1910년 작곡 연표, 초고, 정서본, 판각용 사본의 관계와 1908년 착수설의 한계를 정리한다.
The Morgan Library & Museum, 자필 정서 총보: 자필 총보의 소장 정보, 표제와 이전 소장자를 확인한다.
Universal Edition, 작품 페이지: 네 악장, 상세 편성, 일반 소요 시간과 Erwin Ratz 편집 악보를 제공한다.
Universal Edition, 1–3악장 초고 영인본: 1909년 9월 초고와 New York 정서 과정, 초판 납품 시점을 설명한다.
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 Complete Catalogue: Ratz 편집 KGA와 교정 인쇄 연도, 신비평전집의 현재 범위를 확인한다.
Breitkopf & Härtel, Christian Rudolf Riedel 편집 PB 5639: 별도 본문비평판의 자료 원칙과
현악기 활 표시ㆍ하프 대수의 열린 문제를 설명한다.
Wiener Philharmoniker, 1912년 6월 26일 공연 기록: 초연일, 장소, 악단과 Bruno Walter를 확인한다.
Library of Congress, Walter 1938 National Recording Registry 해설: 초연과 초기 수용, 최초 녹음의 제작 과정과 시간, 한계 및 Walter의 작품별 설명을 제공한다.
Berliner Philharmoniker, Malte Krasting 작품 해설: 네 악장 구조, 자필 Leb’ wohl!, 사후 고별 수용의 성립과 한계를 설명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 John Mangum 작품 해설: 상세 편성, 1악장의 소나타ㆍ론도 관계, 악장별 관현악 진행과 Walter 전승을 정리한다.
Eliette and Herbert von Karajan Institute, “Spotlight Mahler: The Ninth Symphony”: Karajan의 리허설 기간, 음색 목표와 마지막 악장에 관한 인터뷰를 전한다.
The New Yorker, Alex Ross, “The Conductor Intensifying Mahler Through Restraint”: Rattle/LSO 공연의 템포, 세부 균형과 현악 비브라토 선택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Alpha Classics, Philipp von Steinaecker의 ALPHA1057 북클릿: 거트현, 포르타멘토 , 비브라토와 역사 자료를 연결한 지휘자의 직접 설명이다.
MusicWeb International, Bernstein 1971 리허설 인용: 1악장 39마디의 절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Bernstein의 촬영 리허설 발언을 전한다.
The Classic Review, Steinaecker 시대악기판 비평: 무비브라토 전제와 1938년 Walter 음원의 충돌, 포르타멘토와 절정의 무게를 평가한다.
Associated Press, Kirill Petrenko 인터뷰: Walter 음원을 현재 리허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역사 전승 재현의 한계를 밝힌다.
The Guardian, Andrew Clements, “Mahler: Symphony No 9”: Walter, Karajan, Abbado 등 주요 녹음의 서로 다른 속도와 전체 흐름을 비교한다.
The Guardian, Tim Ashley, Zinman/Tonhalle-Orchester Zürich 음반평: Zinman의 절제, 아티큘레이션과 교향곡사적 관점을 평가한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51 UTC by □□□
Updated 2026-10-04 10:06:51 UTC by □□□